

이승훈, 한국선수 최초 동계AG 4관왕 달성

빙속 남자 매스스타트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 대회 개막 후 4일동안 4개 종목 출전 모두 금메달 획득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이승훈(29·대한항공)이 한국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동계아시안게임 4관왕을 달성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써낸 역사라 한층 값있다.

이승훈은 23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오비히로-도카치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8분12초7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승훈은 매스스타트 금메달로 4관왕에 등극했다.

그는 나흘간 4개 종목에 출전해 모두 금메달을 따며 패조의 컨디션은 뽐냈다.

이승훈은 지난 20일 남자 5000m에서 6분24초32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22일 오후 1시에 벌어진 남자 1000m에서 13분18초56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추가한 이승훈은 불과 3시간 뒤인 오후 4시 후배 김민식(18·평촌고), 주형권(26·동두천시청)을 이끌고 남자 팀추월 금메달에 앞장섰다.

그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

이승훈은 23일 자신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에서도 금메달을 땀.

한국선수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4관왕에 오른 것은 이승훈이 최초다.

이미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5000m 은메달, 1000m 금메달을 따며 역사를 쓴 이승훈은 또 다른 이정표를 세웠다.

쇼트트랙의 김기훈(1990년 삿포로)과 체지훈(1996년 하얼빈), 안현수(2003년 아오모리)가 3관왕에 오른 적이 있지만, 4관왕까지 달성하지는 못했다.

쇼트트랙을 제외한 종목에서 동계아시안 게임 3관왕을 달성한 것도 이승훈이 유일했다. 이승훈은 2011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이미 3관왕에 등극했다.

6년 전 아스타나-알마티 대회에서 5000m와 1000m,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딴 이승훈은 아규학(은퇴), 모태범(28·대한항공)과

나선 팀추월에서 은메달에 그치면서 4관왕을 놓쳤다.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7개로 늘린 이승훈은 안현수가 가지고 있던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통산 최다 금메달 기록(5개)을 훌쩍 뛰어넘었다.

개인 통산 동계아시안게임 메달이 8개가 된 이승훈은 쇼트트랙의 김동상이 가지고 있던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한국 선수 통산 최다 메달 기록에 타이틀 이뤘다.

그가 장악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부상 투혼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라 더욱 위대하다.

이승훈은 지난 12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종목별 선수권대회 도중 부상을 당했다.

골절이나 근육 파열, 인대 손상 등의 부상은 없었지만, 이승훈은 8바늘을 꿰맸다. 이승훈은 주종목인 매스스타트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열린 대회에서 불의의 부상을 당한 터라 짙은 아쉬움이 남았다.

동시에 이번 대회 출전도 불투명했다. 주변에서도 출전 가능성을 낮게 접했다.

그러나 부상 다음 날 가볍게 운동을 해본 이승훈은 출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출전을 강행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한 주변에서는 그를 만류했다. 무리했다가 정작 중요한 평창올림픽 준비에 영향을 갈 수도 있었다. 사실 이승훈이 출전을 강행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승훈은 장거리 대표팀의 대들보 같은 존재다. 특히 세 명이 함께 출전하는 팀추월에서 이승훈의 존재는 크다.

팀추월에서 선두에 달리는 선수가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명이 하기에는 벅차 세 명의 선수가 돌아가며 리드한다. 8바늘을 도는 팀추월에서 이승훈이 3바퀴 정도를 이끈다.

이런 이승훈이 빠진다면 한국 남자 팀추



23일 일본 홋카이도 오비히로 오벌에서 열린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 경기. 이승훈이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환호하고 있다. 이승훈은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월의 금메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질 터였다. 한국 선수단의 성적도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승훈은 삿포로로 떠날 당시 "부상 부위 상태를 보면서 출전 종목을 결정할 것이다"면서도 "반약 4개 종목 모두 출전하

지 못한다면 매스스타트와 팀추월을 우선 순위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직 실반도 풀지 않은 상태에도 이승훈은 4개 종목에 모두 나서는 투혼을 발휘, 금메달을 쓸어들었다.

/김민근기자

도, 전북현대 K리그 우승기원 홈경기 시즌권 구입

송하진 지사는 전북연고 프로축구팀인 전북현대 K리그 클래식 우승과 FA컵 우승 기원을 위해 전북현대 홈경기 시즌권을 구입하고 전달식을 가졌다.

23일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부지사, 실국장, 사업소, 도체육회 등 직원들은 시즌권 구입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1,100여만원 상당의 시즌권을 구입했다.

이날 전북현대 홈경기 시즌권 전달식에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부단장이 참여해 도지사과 전북노조위원장에게 시즌권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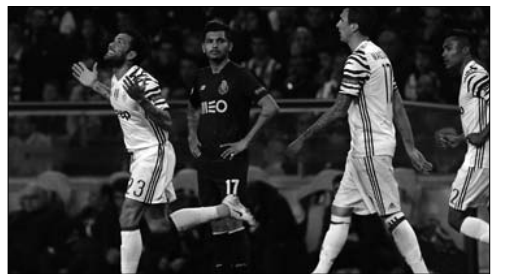
시즌권 구입 전달식에서 송하진 지사는 "전북현대축구단 K리그 및 FA컵 우승의 원동력이 12만여명 선수인 서포터즈 등 도민의 응원이 중요하다"면서 "도차원에서 홈경기 관람객 수가 전년도 4만명을 넘어 설 수 있도록 시즌권 구입에 출선 동참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동탁 현대축구단부단장은 "전라북도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금년 K리그 및 FA컵 우승으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북현대축구단은 지난 18일 도청 공원장에서 서포터즈 등 도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K리그 클래식 출정식을 시작으로, 3월 5일 전남FC팀을 상대로 2017년 K리그 클래식 대장전에 오르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대회로 인해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K리그를 개최할 수 없어 대체경기장인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잔디교체비 등 시설비로 도비 2억원을 지원할 바 있다.

/인재용기자



유벤투스, 챔스 16강 1차전 FC포르투에 2-0 승리

유벤투스(이탈리아)가 FC포르투(포르투갈)를 꺾고 2016~2017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확정짓고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유벤투스는 23일(한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투 에스타디우 두 드라카에서 열린 포르투와의 대회 16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를 거둔 유벤투스는 오는 3월15일 홈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1점차로 패해도 8강 진출을 확정짓는다.

유벤투스는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격을 통해 포르투의 골문을 노렸다. 행운도 따랐다.

전반 27분 포르투 수비수 알렉스 테에스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잡았다. 유벤투스의 공세는 계속됐다. 하지만 포르투 골키퍼 카시아스의 선방으로 좀처럼 골이 터지지 않았다. 답답한 공격을 이어가던 유벤투스는 후반 22분 교체카드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효과는 적중했다. 교체투입된 마르코 피아치가 5분만에 골을 터뜨렸다. 피아치는 상대 수비를 맞고 흘러나온 볼을 오른발로 연결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4분뒤에는 다니 알베스가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후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 유벤투스는 적지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겼다.

세비야(스페인)도 레스터 시티(잉글랜드)에 승리를 거두고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김민근기자

전북도, 2018 전국체전 차별화 전략 마련한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논의된 사항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등에 적극 반영

전북도 전국체전준비단은 23일 2018년 전국체전의 차별화된 구성으로 전북꿈 찾기와 성공개최 전략 마련을 위해 '2018년 전국체전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문회의는 체육, 관광, 문화예술 및 축제, 경제 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유관기

관·단체 임원, 현장종사자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2018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의 차별화 전략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14일 전국체전관련 유관기관 협업회의 이후 열리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및 종합사업계획수립 등에 적극 반영해 타시·도의 체전과 차별화를 통해 전북도민의 화합과 전국체전 성공개최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된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18년 전

국체전은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토탈관람을 통한 전북관광과 도민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체전을 통해 전북도가 전국의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제9회 전국체전은 총사업비 833억원을 투자해 전북도, 도교육청, 도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되며 47개 종목에 익산종합운동장 등 69개 경기장에서 3만여명의 선수 및 임원이 참여해 2018년 10월중에 7일간 개최된다.

/인재용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